

# 임실지역활력네트워크 총회 개최

### 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비영리 사단법인 임실넷 설립

임실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군은 최근 지난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임실군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영리 사단법인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실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실

천 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 설립됐다. 사단법인 임실지역활력네트워크(약칭 임실넷)로 새롭게 출범하며, 지역 내 농업·농촌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민간활동가가 모여 뜻을 합쳐 설립됐다.

임실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여타 다른 중앙부처의 기존 공모사업과는 달리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데 역점을 둔 사업이다.

총사업비 73억7,500만원으로 농림축

산식품부와 임실군이 계획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다.

그동안 추진단은 공동체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 224명이 수료했다.

해당 사업의 지원을 통해 기존 지역활동조직(액션그룹)은 물론 주민 스스로 신규법인 설립 및 창업으로 만들어진 19개 액션그룹을 포함해 총 51개 공동체가 지역 내에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사단법인 임실넷은 임실군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의 한 축이 되는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촌 지역의 여러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데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최근 농촌 관련 중요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도 사단법인 임실넷의 출범은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총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농촌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풀어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입을 모았다.

심 민 군수는 "추진단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기관·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임실군은 지난 14일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 남원시, 몽골 달란자드가드시 등과 협약 체결

### 글로벌 캠퍼스 활성화 및 인재양성

남원시는 22일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제일고등학교, 몽골 달란자드가드시 그리고 달란자드가드 제1번 학교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류 및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그리고 교육 인프라 구축과 산업인력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2027년까지 캠퍼스 설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시는 22일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제일고등학교, 몽골 달란자드가드시 그리고 달란자드가드 제1번 학교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는 지난 3월 22일 서울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매입을 완료하였고, 미준공건축물 철거와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을 위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도 캠퍼스 건물 정밀안전진단과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유학생 전용 학부 운영 및

커리큘럼 정책연구 등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일고, 몽골달란자드시, 제1번 학교와의 협약으로 각 기관간의 학생 교류와 인재 양성을 통해 외국인 유학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농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영농 현장을 방문하여 일손돕기를 펼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 순창군수, 영농현장 방문 소통행보

### 영농철 주민 애로사항 청취 영농현장 방문... 29일까지 7개 읍면 순회

최영일 순창군수가 농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영농 현장을 방문하여 일손돕기를 펼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최 군수는 지난주 11개 전체 읍면의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을 마친데 이어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유등, 풍산, 쌍치 등 7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4년 영농철 주민 애로사항 청취 영농현장 방문'을 시작했다.

이번 영농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과 함께 농민들을 격려하고 영농현장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지포 보조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이에, 최 군수는 이번 영농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영농현장을 동행한 각 관련 부서장들에게 적극 당부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 농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 농업자재비용의 부담, 농산물 판매와 유통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먼서'이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돈 버는 농업'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1일 첫 방문지인 동계면에서 최 군수는 농민들의 일상을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결과 응배수로 작기 준설, 두름 보육 보조 지원비율 확대, 신규 두릅식재 농가

한편,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영농현장 방문은 22일 북흥면과 팔덕면, 23일 순창읍과 인계면, 27일 적성면, 28일 구림면을 마지막으로 6일간의 영농현장 방문일정이 마무리된다.

##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엔에프푸드, 상호연구협력 MOU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원장 정도연)과 엔에프푸드(주)(대표 최항석)는 지난 21일 상호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및 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엔에프푸드(주)는 군산시에 위치한 육가공 식품 전문기업으로 유망중소기업 인증(전북도) 등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이다.

이날 양 기관은 상호협력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양사의 인프라 활용 및 활성화 지원,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발효미생물과 발효원천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등 공동 연구개발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지역 소식통



### 남원,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아이들의 적절한 뇌 발달과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예방 와이파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은 정신건강 전문가인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하며, 5월 22일 관내 '신나는 어린이집'부터 7월까지 총 17개 어린이집 57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실태 점검과 진단, 과의존 예방 활동 등 어린이집별 2회기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 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일상 속 건전한 디지털 이용 여건 조성과 스마트폰 사용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실군, 학교급식 지역산 가공품 공급업체 합동점검

임실군이 학교급식 식재료(지역산 가공품) 공급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점검반은 3명(임실군 1, 임실교육지원청 1, 영양교사 1)으로 구성했으며,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실시했다.

점검반은 유제품류, 두부류, 장류 등 지역산 가공품 공급업체의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장 위생 상태, 식재료 보관 상태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종사자 위생관리 △작업장·식품 보관의 청결 및 정리 정돈 상태 △식재료 보관 적정온도 관리 △지역산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공급업체 대부분이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 조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